

이성시, 『동아시아 세계론의 실천과 이론: 유동하는 고대』, 2019년 4월 20일 한국의교사연구 발제

7세기 후반 동아시아: 백제, 고구려의 멸망, 나당 전쟁, 발해의 건국과 한반도에서의 남북의 대치, 새로운 판도에서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형성

7세기 후반 이후 2백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질서 형성의 대가로서의 1백년의 변천에 주목

1백년에 이르는 동란의 추이와 새로운 질서 형성에 이르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해당 지역 나라들이 전개한 외교 논리들이 전개되는 장으로서 해당지역을 파악하려는 시도

예군 묘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발견된 출토 문자 사료에 주목하여 책봉을 비롯한 독자적인 외교 논리가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을 작동한 점에 대해 고찰

1. 수·당의 성립과 동아시아

니시지마 사다오의 책봉체제론

중국 황제와 주변 여러 민족의 군장과의 관작의 수수, 책봉관계를 정치권 형성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문화권 형성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 호리 도시카즈: 책봉관계는 극히 한정된 관계에 불과

기미(羈縻) 지배라는 여러 관계 속에서 책봉의 파악

기미지배: 책봉, 기미주, 화번공주(和蕃公主), 조공관계 등 다양한 형태

- 당나라 시대 기미주: 국내제도인 주현을 이민족과의 정복전쟁 과정에서 적용, 통일적 군주의 폐위, 여러 민족을 분할하여 도독부 산하에 주와 현을 편성, 각각 군장들에게 도독·자사·현령의 작위를 주어 체계적인 관료 체계 침투

↔ 기미체제가 책봉체제와 서로 배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점: 문무왕은 책봉에 의한 신라왕임과 동시에 계림주 도독

↔ 다만 기미주는 관료제 지배가 책봉체제보다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 도호부에 당의 관리·군대가 주둔하여 감시

* 화번공주: 이민족의 군장에게 공주(황녀)를 보내는 화친 정책, 부근 민족들에 대한 지배 강화를 노린 정책으로 수당 대에는 인근 나라들에 대한 황제의 은총이라는 의미 강화, 주변 군장의 입장에서는 영예

당과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책봉체제로 일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고 7-8세기에 성립된 동아시아 세계질서에 대해 기미주 성립 배경에 유의하면서 서술

2. 수·당의 동방정책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

- 수의 동방정책과 주변 여러 민족

수의 통일 이후 삼국이 모두 수와 책봉관계를 맺음에 따라 일원적인 국제질서의 형성

삼국이 모두 군공의 작호를 수여받았다는 점, 당대에서는 삼국의 '郡公'은 '郡王'의 진작

* 당대에 다른 주변국과 달리 삼국에게만 본국왕과 군왕호를 동시에 수여

6세기말 수에 의한 중국 대륙의 통합 추세 + 백제와의 제휴로 힘을 축적한 신라의 고구려 영역으로의 진출 도모

→ 양쪽의 군사적 압력에 대항하는 전략으로서 고구려의 왜국에 대한 외교: 고구려 승려 혜자의 외국 체재, 양국간 왕성한 인적·물적 교류

→ 고구려는 대수 정책으로서 적극적인 대왜 외교 전개

수의 책봉을 받은 백제와 신라의 요청, 수양제는 612년 백만 대군으로 고구려 침공

-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백제·신라

고구려의 당에 대한 경계: 부여성에서 발해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의 축조

640년 당에 의한 고창국의 멸망, 고구려는 세자를 보내 당에 조공, 당은 진대덕을 답례사 명목으로 파견하여 고구려 내정의 시찰, 군사기밀을 비롯한 정보 수집 보고서인 『奉使高麗記』 제출

642년 연개소문에 의한 쿠데타, 백제의 권력 집중 등 양국의 국내정치 변동의 소식이 왜국에 전달

645년 고구려, 백제의 정치변동의 영향에 따라 왜국에서도 정치 변동

당의 동방에 대한 압력→ 삼국간 상호 긴장감 고조, 국내 정치 변동→ 왜국에 영향 국제적인 계기가 내정으로 전화, 고구려, 백제, 왜국에서 특정 개인에게 권력 집중 및 개혁정책 수행이라는 공통의 특징

- 당의 대외정책과 신라

642년 백제의 급습→ 김춘추 파견을 통한 고구려와의 연대 모색

↔ 당과 결탁하려는 신라 봉쇄를 위한 백제와의 공동전선

승려 자장을 통한 대당 외교 전개: 군대 파견 요청

당태종: 선덕여왕의 폐위, 당조 남자를 신라의 왕위에→ 비담의 난→ 진덕여왕 즉위

김춘추: 왜국 방문, 당에 조공, 당의 의관제로 변경, 650년 당 연호의 채용, 관청, 관직의 개정, 개칭 등 당화 정책의 추진

→ 당의 무력을 배경으로 백제, 고구려에 대항해가는 독자적인 외교노선 추진

진덕여왕의 대당 외교의 평가를 상징하는 유물이 태종의 昭陵에서 출토

문헌 사료에 전하는 14개 변국군장의 석상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대좌의 파편 발견, 대좌의 명문 중 「新羅樂浪郡王金眞德」

신라의 진덕왕이 태종의 대외정책과 깊게 관련된 '十四蕃君長'에 혼자 나열

3. 백제의 멸망과 당의 기미 지배

김춘추의 무열왕 즉위

655년 고구려·백제 연합군이 신라 북부 침입, 신라의 당에 대한 원군 요청 당고종은 고구려령 침공, 658년에 당의 고구려 공격
신라에 의한 당의 백제 토벌 요청, 660년 8월 백제의 멸망
당 고종은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의 5도독부 설치, 점령지에 대한 기미주 지배 지향
백제 부흥 운동, 백촌강에서의 패배 등 663년까지 모두 패퇴, 웅진도독부만 존속
일본서기 天智紀에 전하는 당사, 백제진장과의 교섭으로 663년부터 671년까지 8년에 걸쳐 왜국과의 왕래가 확인된다는 점

- 웅진도독부와 당의 백제 유민

웅진도독부 존재 시기 당의 입장에서 외교를 담당한 '예군': 백제 부흥군 패퇴 후 2번 왜국 방문, 신라와의 교섭

2011년 예군의 묘지 탁본 공표: 백제 출신으로 백제 멸망후 당에 투항하여 출사

웅진도독부에서 사자로 신라에 파견, 스파이 혐의로 억류

예군의 묘지 발견으로 백제 유민의 묘지는 웅진도독부의 실패 해명의 단서

백제 유민의 묘지를 통해 다수의 백제 유민들이 당에서 어떠한 입장으로 활동했는가, 웅진도독부 등의 당의 기미주나 그들의 당에서의 활동에 대한 해명

당에 투항한 백제 유민과 자손이 당의 무관직을 거쳐 기미주에 파견되거나 흑치상지 사례에서 보듯이 당의 대외전쟁에 나갔다는 사실

예군도 당의 기미 지배에 종사하였던 백제 유민의 일인

4. 고구려의 멸망과 동아시아

- 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고구려국 재흥

연개소문의 사망과 세 아들 간 분쟁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한 평양성의 함락, 보장왕 등 고구려 신료들의 당으로의 연행 평양에 안동도호부 설치, 당에 의한 고구려 기미주 지배 개시

고구려 유민의 부흥 운동, 669년~670년 고구려 유민 겸모잠의 반란, 당의 세력이 한 반도 북부로 향발

이 기회를 활용 신라는 구백제령에 침공하여 670년 82성 함락

82성 서쪽 요지인 금마저에 당의 집압군에 패태한 왕족 안승 등 고구려 유민들을 맞아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립

고구려왕에 더하여 보덕왕으로 책봉하는 형식, 신라는 전략적 의도에서 고구려국을 부흥시켜 신라의 藩屏으로 삼은 것

문무왕과 안승과의 사이에는 중국 황제와 본국왕과 같은 관계를 모방하면서 고구려국이 再興된 것

고구려국에서 673년부터 684년까지 6회에 걸쳐 왜국에 조공

신라사가 고려사와 동반하여 행동, 실질적으로 신라의 送使 역할을 수행
 고구려국의 대외 외교 방식: 신라는 고구려 유민의 잔존 세력을 쉽게 말소하는데 까
 지는 이르지 못하고 고구려에 접근하여 고구려의 독자성과 대외 활동을 인정하면서
 자체 관할 하에 두려고 한 동향이라는 견해
 나당 전쟁중인 신라: 고구려국의 대외 외교는 고구려 유민의 주체성보다는 왜국의 근
 심을 없애기 위해 고구려국을 활용하려는 신라의 전략
 고구려국: 신라에 의한 고구려 유민의 安道와 당을 향한 견제 전략
 나당 전쟁 종식 후인 680년 문무왕은 王妹를 안승에게 시집 보내는 조치
 → 王妹였지만 문무왕과 안승 모두 화번공주 정책으로 간주
 ↔ 당은 신라의 고구려국 재흥 움직임에 대응하여 안동도호부를 요동지방으로 옮기고
 보장왕을 조선군왕으로 봉함
 678년에 제작된 예군의 묘지: ‘僭帝(신라의 왕) 갑작스럽게 신하라고 칭하였다’
 당과 신라와의 군사적 긴장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료
 ↔ 삼국사기 676년 나당 전쟁의 종식
 “이 때 백제의 잔당은 왜국에 의거하여 誅罰을 피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의 잔당은 신
 라를 거점으로 하여 막는 형세는 견고하였다”
 신라왕을 참제라 칭한 것은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고 고구려국을 재흥시킨 것이
 한반도의 기미주 지배를 목표로 하는 당을 향한 일련의 반역적 행위를 가르키는 것
 예군 묘지는 당이 신라를 대하는 자세를 묘사하고 있어 나당전쟁의 요인을 규명할 때
 동시대 사료로서 주목
 일본이라는 용어가 보이지만 예군 묘지가 제작된 시점에서는 ‘일본’이 국호로서 성립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5. 나당전쟁의 종언과 동아시아

- 당·토번 전쟁과 나당전쟁

신라의 고구려 유민의 반란에 편승한 공세 ↔ 당과 토번과의 높은 긴장 상태
 670년 제1차 당·토번전쟁의 대패, 한반도 전선에서 활약한 설인귀의 소환, 고구려 유
 민 검모잠의 봉기
 671년 신라는 당의 기미주인 웅진도독부가 있던 사비성(부여)을 탈취하고 소부리주
 설치
 674년 문무왕의 관직 삭탈: “고려의 배반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백제의 고지에 의거하
 여 지키게 하였다”
 신라 정토군의 파견, 유인귀가 칠중성(경기도 적성)에서 신라군 격파, 이근행이 20만
 을 거느리고 매소성(경기도 양주)에 주둔하여 신라병 패주
 신라는 사죄사를 당에 파견, 문무왕의 왕위 회복
 한반도에서 당 우세의 전황 속에 676년 이근행을 소환하여 대토번 전선에 투입

당은 신라와의 전투에 병력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상황, 678년 9월 토번에 대패
신라에게 유리한 상황의 전개

676년 나당 전쟁의 종식은 당·토번 전쟁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

678년 9월 토번전에서의 대패로 당은 군사적 여유를 잃고 신라 토벌을 방기하는 상황, 678년 2월에 제작된 예군 묘지에 문무왕을 '참제'로 칭한 것은 당은 이 때도 신라와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식

제3차 당·토번전쟁(687~696)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쳤고 698년 속말말갈의 대조영이 말갈제족과 고구려 유민을 거느리고 발해를 건국

→ 발해 건국에 이르는 과정에 당과 토번의 각축이 연관성이 있다는 점

- 신문왕대의 통일정책과 왜국

684년 1월 안승의 일족인 장군 大文이 금마저에서 반란, 신라군에 의한 진압
금마저에 안치되었던 고구려 유민의 國南의 州郡으로 분산 이동→ 고구려국의 멸망, 9주 5경제의 정비→ 대규모 국내 인구 이동

신라와 왜국 모두에게 웅진도독부의 패망이나 고구려국의 멸망으로 백제·고구려 왕권 하의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 편성의 원리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체제의 필요성→ 대규모적인 외래자를 포섭하는 국가형태의 탄생

당과의 교섭이 완전히 단절되었던 7세기말에는 왜국은 신라와의 교섭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 모색

- 천룡산 석굴의 당나라 시대 조영에 관련된 大唐勿部珣功德記

백제의 유민인 불부순을 6세기 이래 백제 왕권과 관계를 가졌던 외계 백제 귀족이고 백제 멸망 후 당에 건너왔던 백제 유민으로 추정

중국에서 다수 발견되는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의 묘지를 통하여 고대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다양한 사람의 이동에 관한 연구 활성화 기대

기존의 인구이동에 대한 견해: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열도라는 한 방향의 vector 강조 ↔ 불부순의 사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동

동아시아 여제의 역사

- 일본: 592년부터 770년까지 대왕·천황의 16대 가운데 여성이 8대 6인

- 신라: 선덕, 진덕, 진성여왕 ↔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에 없었던 점

- 당의 측천무후

* 배경: 여제 시대의 국제환경(외교·군사적 대응이 절실해져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대), 신라의 왕권과 여제의 특징(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기반구조), 신라·당의 여제와 불교